

금융개혁추진위원회 위원장 브리핑 요지

①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장범식입니다.

- 오늘 오전에 개최된 '금융개혁 추진위원회'에서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되었음
- 지난 1월말에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는데, '금융개혁 추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아 제2단계 금융개혁을 추진하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낌
- '제2단계 금융개혁 방향'과 '금융개혁 추진위원회' 운영방향에 대해 간략히 브리핑 드리겠음

② (15년 금융개혁 평가) 작년 3월 금융개혁 추진을 위해 민상기 교수님을 의장으로 하는 '금융개혁회의'가 발족되어 9개월간 금융개혁을 추진하였음

- 저도 금융개혁회의 위원으로 참석하여 17차례에 걸쳐 70개 세부 실천과제를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여 확정 발표하였음
- 검사제제개혁을 시작으로 기술금융 확대, 핀테크 활성화, 자본시장 개혁, 그림자규제 근절, 금융규제개혁 등 우리 금융사에 남은 금융개혁을 추진했다고 생각함
 - 특히, 금융당국은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 등을 통해 개혁회의 위원들도 놀랄 정도로 스스로 먼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음
-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 금융현장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규제와 감독관행 개선이 지속될 필요가 있으며, 작년에 발표한 과제들이 차질없이 이행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았고, 금융권 스스로 변화와 혁신을 해야 한다는 반성의 의견도 많았음

③ (제2단계 금융개혁 추진방향) 오늘 논의한 '제2단계 금융개혁 방향'에 대해 대부분의 위원들은 이러한 현장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한 것으로 평가

- 제2단계 금융개혁은 기존에 마련한 개혁과제를 시장에 확고히 안착시키고, 작년에 마무리 짓지 못한 과제들을 신규로 추진할 것임
- 금융개혁 추진위원회는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다섯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운영해 나갈 것임
 - ① 우선, '15년에 추진한 70개 세부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지속해서 점검해 나갈 것임
 - ② 둘째, 우리 금융회사들이 국내 경쟁에 머물지 않고 해외진출 등을 통해 외연을 넓혀 나가도록 하겠음
 - ③ 셋째, 지난해 국민들의 편익을 위한 서비스들이 많이 출시되었다면, 올해는 기업들에게 보다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개혁과제를 보다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임
 - ④ 넷째, 성과중심 문화 확산,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 스튜어드십 코드 등 금융권의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도 충분한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적극 논의
 - ⑤ 마지막으로, 서민금융을 확대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과제들도 소홀히 하지 않고 추진하겠음
- 이러한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여 금융위와 금감원이 4대전략, 12대 핵심과제, 36개 세부과제를 마련하였음
 - 앞으로 이들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되, 현장점검반, 옴부즈만 등을 통해 발굴된 과제도 적극 논의

④ **(향후일정)** 금융개혁 추진위원회는 앞으로 **매월 1회** 개최하고
필요시 수시 개최를 통해 개혁안건을 논의할 계획임

- 매 회의에서는 **신규 안건**과 함께
기존에 발표한 과제의 진행 상황을 점검해 나갈 계획임
- 또한, 추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들이 즉시 시행되도록
금융위원장님과 금감원장님이 계속 참석할 예정이며,
 - 금융위 **옴부즈만** 위원들도 참석하게 하여
현장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공유함으로써
보다 현장에 필요한 방안을 도출해 나가겠음

⑤ **(마무리 말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금발심 위원장’과 함께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함께 맡아 **영광스럽지만**, 한편으로는
중요한 시기에 중책을 담당하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낌

- 특히, 최근 **국내외 경제금융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고,
금융권의 수익성이 점차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금융개혁의 성공이 절실한 시점임
- “**위기(crisis)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생겨난다.1)**”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금융산업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여
변화와 혁신을 이루어 낸다면
 - 금융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
- 저와 금융개혁추진위원회 위원들은 금융 발전을 위해
조언과 충고를 아끼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1) 토마스 쿤, “과학혁명구조”(1962)